법안개정에 문화단체 반발

문화특집 정부의 음반·비디오 개정법 진단

◇민예총을 주축으로 한 민족음악진영이 개정법에 대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공윤 사전심의·견품수거등 악법존속
개정법 철폐를 위한 운동 활발
'한·미 통상'미명, 외국인 투자허용

문화부는 지난 2월7일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의해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제도정비'라는 문화부의 개정이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족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많아 새 법률안의 재검토가 시급해졌다.

우선 개정되기 전의 '음반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의 사전심의에 의한 실질적인 검열행각이다.

법률로 규정된 심의기준에는 '국헌문란', '국위손상', '미풍양속에 피해'가 있는 음반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들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공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당연한 귀결이며, 이에 의해 법의 확대해석, 공윤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러한 비민주적인 검열행각이 사전심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후에도 '납본'과 '자켓검열'등으로 계속된다.

납본은 현재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음반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신고절차이다. 그러나 음반배포 이전에 납본필증을 교부받아야만 하는데, 공윤에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교부하지 않으면 납본이 또 하나의 검열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행정적 차원에서 관계공무원이 법원의 영장발부가 없이도 견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검열을 지속시키고 있다.

둘째, 음반 제작자 등록에 관한 문제이다.

법이 정하는 음반제작자의 조건은 '녹음·제작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십억의 자산이 없으면 신규등록을 불허하는 현 상황을 볼때, 실질적으로 음반제작을 몇몇 대기업체가 독점하도록 유지시켜 주는 근거조항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의 예외로서 정부기관·학교·방송국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관중심적인 사고의 소산이다.

셋째, 음반법에 영화필름을 제외한 모든 비디오물을 편의적으로 귀속시켜 버린 것이다.

비디오테이프와 음반은 그 속성이 매우 다를 뿐 아니라 제작자와 유통구조, 판매처가 엄연히 다르므로 이 법안은 현실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하고 편의적인 음반법의 시행으로 퇴폐·음란·폭력 비디오가 범람하게 되고,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커지게 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정안은 아예 영화법으로 포함시켜야 할 비디오를 음반과 함께 묶어 두고 있어 비디오에 대한 국민의 악감정을 이용하여 요즘 한창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는 민족음악진영에 대한 부당한 심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문화의 매체가 될 비디오에 사전적 통제역할도 더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되기 전 음반법에서 마땅히 철폐되었어야 할 공윤의 사전심의, 제작자 등록에 요구되는 제작시설 기준, 관계공무원에 의한 견품수거 등의 조항은 오히려 강화조치 되었으며, 이를 위법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기존의 불법음반 심의기준에 '국제적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는 더욱 더 애매모호한 규제조항이 첨가되어 있다. 이는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반미 감정을 우려하면서 반미운동의 대중적 성장에 대응하여 미리 제도적으로 규제하자는 의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제작자 등록의 시설기준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 음반법의 시설기준 조항을 존속시키고 있다.

공무원에 의한 불법음반수거도 견품수거가 아니라 모든 불법음반, 비디오물을 수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검열장치를 강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개정전 음반법에서 외국인 투자 금지조항을 없앰으로써 한번도 여론을 확인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완전한 개방'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한·미통상협정 후속조처로 어쩔 수 없다'고 빈약한 변명을 하였으나, 이번 조처에 대한 문화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수산물 수입개방등 경제개방에 따른 경제파탄에 이어, UIP영화직배 등 문화개방도 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뿡짝이 우리의 전통가요라고 잘못 알고 있는 식민지적 의식이 만연한 우리의 상황에서 일본, 미국등 제국주의문화가 밀려올 때, 우리 민족문화의 소멸과 종속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음반제작, 판매까지 완전한 시장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음반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러한 개정이 아닌 개악이 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안' 저지를 위해 민예총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는 민족음악협의회(이하 민음협)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장기적인 공동대응에 들어갔다.

민예총은 '사전심의 철폐, 창작표현의 자유 쟁취'를 목표로 음반 및 작가·편곡자들의 모임인 하모니회의 동조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또한 민예총은 개정악법철폐를 위한 공청회, 헌법소원,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면 그들이 제작한 불법음반이 나오게 된다.

모든 문화·예술에 대한 가장 정확한 심사기구는 바로 여론이다.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부여된 가운데 완성된 예술작품이 민간의 자율적인 심의기구에 의해 심사되어질 때 비로소 건전한 대중문화가 이루어지며, 행정적 처리에서 오는 비리나 헛점을 막을 수 있다.

이번 음반법 개정은 분명히 법적 문화운동탄압의 시발점이며, 앞으로 더욱더 가중된 탄압이 예상된다. 이러한 탄압을 극복하고 건전한 민족·민중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문화단체들간의 연대 대응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금주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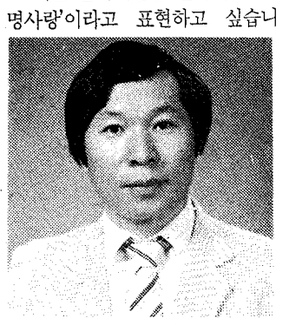
비디오와 음반의 법적 통합은 민족음악의 진영으로부터 부당심의를 추측케 한다

인터뷰

詩전문지 '시와 시학'주간
김재홍(문리대·국문과)교수
생명·사랑·자유의 시정신 추구

"민중문학진영과 기존문단권의 대립구조는 변증법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통합지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문단이 민중문학과 기존문단의 장점을 살려 역사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문학성과 예술성을 결합하는 질적인 비약이 필요한 단계임을 역설하는 김재홍(문리대 교수·국문학)교수는 "비평의엄격성을 기해 기존의 문인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올바른 관점으로 재정립해 나갈것입니다. 한 문인의 문학사적 위치는 그의 정치적 성향으로만 평가되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그가 편집주간을 역임하고 있는 시전문 계간지 '시와 시학'(지난 1일 창간)의 '편집방향성의 한 면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문인에 대한 올바른 평가기준은 무엇일까? 이러한 궁금증은 창간이념을 보면 자연히 풀려진다. '생명, 사랑, 자유'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념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 세 단어는 문인에 대한 평가기준과 문학관 정립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저는 문학이념을 한마디로 '생명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곧 인간존중사상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념으로서 자유사상·평등사상이 대두가 되는거죠.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 문인에 대한 평가는 그의 문학이 생명사랑, 인간사랑, 자유사랑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탁월하게 형상화 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형상화가 진정한 인간적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민족문학사에 기여했는가 하는 점이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그의 문학이념에 입각해 '시와 시학'창간호에 게재된 논문(제목:교과서 수록시 평설)에서 정지용 고은, 신경림의 시를 새로운 평가의 틀로 분석하고 있다. 7·80년대 주류를 이루었던 '창작과 비평'등의 종합계간지와는 달리 90년대를 '전문계간지'의 시대로 규정하고 시문학전문지로의 면모를 갖춘 '시와 시학'의 향후 활동에 자못 기대가 크다.

끝으로 그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덧붙인다. "요즘 경희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희인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요즘 본교의 문인배출이 매우 줄어들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발한 문학활동에 전개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군요." 〈仁〉

이념 앞에선 모두가 피해자
연극감상 —이상 문학상 수상작 '붉은방'

◇현실 상황의 정확한 묘사가 돋보인다.

한편의 소설이 무대에 올려질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부분 기대감을 가지기 마련이다.

소설이 개인적인 '감동'의 차원에 머문다면 연극은 관객모두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소설의 극화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12회 이상문학상(1988)수상작품인 임철우의 '붉은방'이 지난 3월8일 바탕골 소극장에서 앵콜공연을 가지게 되었다. 극단 '배우극장'에 의해 막을 올리게 된 '붉은방'은 원작과 흡사한 대사처리, 현실적 상황을 정확히 묘사한 무대의 설정으로 관객들에게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시·공간의 제약을 동시에 극복해낸 독특한 무대연출이 장기공연을 치룬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몽땅 껍데기 뿐이야. 너나없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서 너도나도 앞다투어 껍데기 행사만 하는 거라구"어느 한 시대, 사회라도 비판적인 목소리로 활시위를 당기는 자들에게는 남다른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였다. 그런 까닭에 올바른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우리네 현실은 껍데기만의 삶으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출근을 서두르며 냉철하게 사회현실을 꼬집는 오기섭은 전교조에 가입했던 고등학교 교사·수배자인 친구를 며칠간 집에 머물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체불명의 두사나이에게 연행된다.

욕조와 책상, 의자 몇개만이 덩그런히 놓여있는 지하실방, 광기마저 드리운 붉은 벽, 붉은 방에 갇히게 된 기섭은 "법치국가인 이 나라가 영장도 없이 무고한 사람을 구금해도 됩니까. 무법천지…"채 말을 맺기도 전 수사관들의 각목과 구둣발에 실신하고 만다.

"다알고 있어. 어서 말해. 당신 본적이 약산도라며. 그곳은 빨갱이 소굴이었잖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최달식 과장은 6·25당시 가정의 파괴를 경험한 수사관이다.

욕조에서의 물고문, 구타, 전기고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는 최과장과 이를 무기력하게 감수하는 기섭. 이들은 이시대 '붉은방'에 갇힌 짐승일 뿐이다.

가진 자들의 하수인인 최과장과 가진 것이 없는 소시민으로서의 오기섭은 현 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주인공들에 불과하다.

분단으로 얼룩진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현사회의 철저한 반공주의자 최과장을 만든 것이다. "죽어서라도 빨갱이는 모두 처단하고 말겠다"는 그의 병적인 강박관념은 전쟁으로 빚어진 시대적 정신질환의 증세로 표출된다.

시·공 초월한 입체적 연출기법 뛰어나

소설 '붉은방'이 연극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름아닌 '붉은방'이 이원적 의미를 연출했다는 사실이다.

시종일관 고문실 옆에는 홍등가가 자리함으로써 한사회의 병폐를 노골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유흥업소의 부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생된 인간의 상품화로 상품가치에 불과한 여성이 더이상 인간일 수 없음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지나친 퇴폐성 강조는 오히려 연극의 메세지를 희석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무희들의 춤이나 수사관들의 술집에서의 행태가 관객들에게 사회 비판적인 시각을 불러 일으키기 보다는 오락적 소도품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는 오기섭은 끝내 폭력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나약한 인텔리의 한계를 보임으로써 '세상이 그러니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패배주의를 관객에게 전달하고 말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가"라는 시대적인 물음앞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었다는 진실을 극적으로 소화해 내기도 한 사장돼야 할 '붉은방'.

"지금 이순간 또 어떤 붉은 밀실에서 누군가는 고문을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기섭의 단언과 함께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룰수 있고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다"는 '아, 대한민국'노래가 무희들의 춤과 어우러지며 막이 내린다.

어떤 한 사람이나 계층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 뜻이 바로 서야 바른척도가 마련이 되듯 이데올로기로 얼룩진 우리네 역사에서 진정 올바른 척도는 요원한 것인지, 그릇된 반공의 척도를 가진 달식이 올바른 '반공'의 뜻에 따라 원수인 빨갱이를 처단하고 있는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기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화살을 던진다.

밝은 세상을 노래하는 현실에서 조차 밝은 세상을 볼 수 없는 오늘, 뜨겁고 늘 푸른 民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 진정한 이 시대의 가해자는 끝내 패배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역사의 진리가 이땅에서 살아숨쉴 그날은 결코 내일이될수없을 것이다.

정 유 미
〈대학원 석사3기·신방학〉

세계인의 상표 SHARP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혁신적인
사프공학용계산기

초강력 그래픽 공학용계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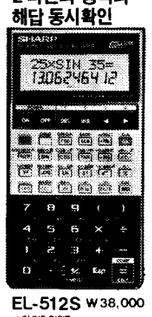
EL-9000 W72,500
●16자리~4줄 문자식표시(10+2) ●194 함수 ●통계학 ●2, 8, 16진수변환 ●정수메모리 26개 ●15괄호계산 ●논리연산 ●프로그램 5, 120 STEP ●99개 공식메모리

24 자리 문자식 표기

EL-5150 W69,300
●24자리 문자식표기(10+2) ●15괄호 계산 ●104 함수 ●논리연산 ●99개 공식메모리 ●정수메모리 26개 ●통계학 ●2, 8, 16진수변환 ●프로그램 1,454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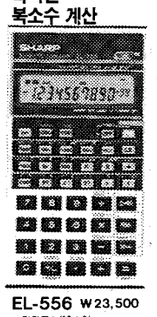
어렵고 복잡한 공학계산이라면 샤프가 책임지겠습니다.

2 라인의 공식과 해답 동시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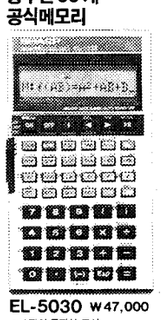
EL-512S W38,000
●2LINE DIGIT 상: 12자리 문자식 표시 하: (10+2) ●127 함수 ●통계학 ●2, 8, 16진수변환 ●정수메모리 13개 ●논리연산 ●최종정답호출 ●프로그램 256 STEP ●4개 공식메모리

독특한 복소수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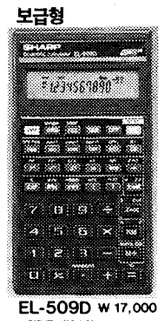
EL-556 W23,500
●DIGHT: (10+2) ●112 함수 ●통계학 ●2, 8, 16진수변환 ●복소수 계산(CPLX) ●3변수 1차 방정식 ●도분초 계산(DMS) ●논리연산 ●수정기능(MDF) ●무작위 변수계산(RND)

풍부한 99 개 공식메모리



EL-5030 W47,000
●16자리 문자식 표시 ●144 함수 ●통계학 ●2, 8, 16진수변환 ●논리연산 ●정수메모리 267개 ●프로그램 1,421 STEP ●99개 공식메모리 ●최종 정답호출

보급형



EL-509D W 17,000
●DIGHT: (10+2) ●147 함수 ●도, 분, 초 각도변환 ●순열조합 ●통계기능 ●좌표변환 ●쌍극선 함수 ●수정기능 ●역쌍극선함수 ●무작위변수

리포트 작성이 한결 수월한
사프전자타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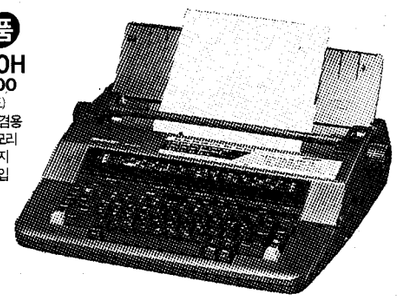
10만원대, 메모리 전자타자기 탄생!

3월시판 예정

신제품
PA-3020H
W198,000
(VAT별도)
●한·영 혼용/겸용
●4,500자 메모리
●타력조정 (2단)
●1라인 자동수정
●삼중타이핑
●110V/220V 겸용

샤프 메모리 전자타자기란?
자주 사용하는 서식이나 문장 등을 기억시켜서 필요시에 호출하여 같은 원고를 일일이 재타이핑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오타의 방지 등으로 깨끗한 리포트를 작성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10만원대로서는 국내최초, 샤프만의 독창적인 전자타자기입니다.

자매품
PA-3200H
W300,000
(VAT별도)
●한·영 혼용/겸용
●4,500자 메모리
●한글 오타방지
●자동 용지삽입
●이중 타이핑



※ 샤프 공학용계산기 및 전자타자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친절하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판매대리점 및 A/S센터■
■서울: 샤프OA 757-6278, (주) 삼신사무기 777-4741~2, 남대문계산기센타 778-0918, 청계샤프 274-2480, 샤프용산 719-8144~5, 동한전자 678-7311~3, 신한비지네스써비스 703-8818~9, 동우교역 701-3220, 용산사무기 718-3190~1
■인천: 인천샤프 424-0665·435-0865, 신우사무기 763-3871~2
■수원: 수원샤프 44-3030
■청주: 영진사 55-5785
■평택: 평택샤프 54-6040
■천안: 천안샤프 2-4226
■대전: 창신상사 256-0907
■춘천: (자) 한일기계 55-6627~9
■원주: 동아사무기 42-6864
■강릉: 동아사무기 43-3652
■전주: 신도OA상사 6-9666
■광주: 삼성종합사무기 27-5171~2
■여수: 현대상사 62-1221
■제주: 신도사무기상사 52-0186~7
■대구: 경북사무기 22-1523, 한국종합상사 351-0607~9
■마산: 코리아 데이타 48-0125
■부산: (주) 신도상사 642-1321, 462-1001, 코리아 데이타 246-1425~6
■상설전시장■
■시청지하상가: 757-6279
■동방플라자: 775-1234 (교)511
■을지로: 756-2945~6
■영등포: 671-7310
■미아리 신세계: 984-1234 (교)467
■성북: 745-4594
■논현동: 544-9801
■용산: 701-3220

OA 산업의 기수
샤프전자산업(주)